강진 명품청자 알리는 '토요경매' 인기

19일 강진청자박물관 향로 등 15점 출품

어느새 240회…정상 가격보다 50% 할인

오는 20일 명품청자 토요경매에 출품될 작품이 경매 행사장에 전시되고 있다.

강진청자박물관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제240회 '명품청자 토요경매'를 진행한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에 첫 경매를 시작해 240회째를 맞는 이번 토요경매에는 강진관요 작품 9점과 개인요 작가들의 작품 6점 등 모두 15점이 나온다.

이번 토요경매에는 '향로', '5인 다기', '항아리'와 그동안 경매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국보 제68호를 재현한 작품이다. 물레 성형을 거쳐 상감기법으로 구름과 학 문양을 음각한 후 백토와 적토를 메워서 무늬를 그려 넣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초벌구이, 시유, 본벌구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개인요에서는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자기 위주로 출품한다.

영랑요(대표 장일석)에서 양각구름학무늬 식기세트를, 화예도예(대표 남궁복)는 청자 4각 모양의 접시 등을 각각 선보인다.

관광 상품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토요경매는 정상 판매가의 50%의 할인가로 시작해 호가경매 방식으로 진행하고 행사 중간에 퀴즈를 내 사은품도 제공한다.

응찰가격은 최소 5000원 단위로 올리고 1인 응찰도 소수 구매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유효하며 유찰된 작품은 원래 가격으로 환원한다.

오진동 청자박물관장은 "명품청자 토요경매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청자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더 좋은 작품을 엄선해 경매에 꾸준히 출품하겠다"고 밝혔다.

명품청자 토요경매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경매에 출품될 작품은 4~5일 전 경매 행사장에 전시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새해 새 설계

김연태 화순군수 권한대행

"민심통합 우선 '복지화순' 전력"

"새해에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 화순이 민심통합으로 하나가 돼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연태 화순군수 권한대행은 15일 먼저 홍이식 화순군수의 구속기소라는 군정의 위기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올해가 화순의 성장발전을 가속화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을 위해 그 동안의 노력들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7만 군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 전력을 쏟을 생각이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이주여성 조기 정착 및 자립역량 등 기존 사업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농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으로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교육 분야 대책도 내놓았다.

농어촌 뉴타운 마무리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동·하계 스포츠팀 유치

살맛나고 풍요로운 녹색농촌을 실현하고 돈 버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뉴타운 입주자 맞춤형 영농교육과 귀농학교 운영으로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식품산업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시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관 설치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백신산업 전담 운영팀을 구성·운영, 관련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의생명 관련 대학 이전에도 노력할 생각이다.

김 권한대행은 또 "스포츠와 문화관광을 연계, 관광객 연 3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이용대 체육관에서 치러질 국제·전국 대회 규모의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고 하계·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며 "찾아오는 외지인들을 위해 운주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화순 리조트 본격 추진,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누리길, 오토캠핑장 조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군 대표축제인 '2013 화순 힐링 푸드 페스티벌'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개발형 축제로 성공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지금까지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 내고자하는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새해 군정의 모든 가치기준을 군민의 행복에 두고 분골쇄신해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편백숲 우드랜드 입장객 급증…세외수입도 66억으로

장흥군 자주재원 기틀 다졌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의 입장객이 날로 증가하면서 장흥군의 세외수입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60만 명이었던 우드랜드 입장객은 지난해 65만9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급증했다.

장흥군은 15일 "자주재원의 척도라 할 수 있는 2012년말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이 66억원으로 2011년말보다 10억원(22%)이 늘었다"고 밝혔다.

편백숲 우드랜드 방문객 입장객이 늘면서 입장료가 전년도보다 4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의 입장 수입을 올린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 외에도 토요시장 사용료, 제주를 잇는 뱃길인 노력항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9억원), 이자수입(21억원), 사업수입(8억원), 수수료(5억원) 등도 증가 추세에 있다. 장흥군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재정균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및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이문 군 재무과장은 "장흥의 자랑인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등의 성공이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과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읍·면 마을 CCTV 설치

장성군, 수요 조사 실시

장성군은 15일 "오는 28일까지 CCTV 설치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CCTV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로 ▲읍·면 마을 단위 주요 진출입로 ▲주택밀집지역이나 골목길 등 우범지역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시공원과 놀이시설 등이 대상이 된다.

군은 다음달 8일까지 이를 분석하고 설치 장소를 확정, 44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전북

순창보건의료원 신축사업 활기

군, 77억 예산 확보 이달중 설계용역 발주

순창군은 15일 "순창군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순창읍 교성리 일대 9600여㎡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4500㎡ 규모로 신축되는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이달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오는 10월께 착공돼 내년 말 준공된다.

신축되는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외래진료부와 입원병동부, 보건사업부, 응급실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장례식장을 별개 건물로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장례문화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은 유지관리비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등도 갖출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보건의료원은 그 동안 보건사업 및 진료공간의 협소와 벽면 누수,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방문객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새로 신축되는 보건의료원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사랑의 헌혈운동'

15일 남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헌혈을 하고 있다. 남원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를 돕기위해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 〈남원시 제공〉

단신

전주 독지가 "취약계층 도와달라" 1000만원 기탁

전주시 완산구는 15일 "한 독지가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와 달라며 지인을 통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독지가의 뜻에 따라 기탁받은 비용으로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36세대에게 등유 200ℓ(세대당 28만원 상당)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세대, 독거노인가구 등 가운데 선정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청년취업' 87개 업체 330명 신규 채용

군산시는 15일 "지난 11일까지 2013년 '청년취업 2000'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 결과 87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해 330여 명의 신규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청업체의 초임 평균보수는 연봉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신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과 정규직 전환 후 9개월까지 최고 1년 동안 1인당 모두 960만원(대기업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1년간 100만원의 근로장려금도 지급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농한기 경로당 북어포 손질 수입 '쏠쏠'

정읍시 소성면 주동마을 노인들이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경로당에 모여 북어포를 손질하면서 '쏠쏠한' 수익도 올리고 있다.

15일 소성면에 따르면 정읍지역 업체인 (주)정읍농수산에서 지난 8일부터 북어포 손질 및 포장을 일거리로 제공,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북어포 1박스(200마리) 손질과 포장으로 받는 돈은 1만4000원으로 비숙련자는 2일, 숙련되면 하루에 가능한 작업이다.

소성면 관계자는 "다른 경로당에도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업체와 연결할 방침"이라며 "액수는 적지만 노인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회…군정 업무계획 보고 받아

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으로부터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한다.

또 순창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운영행정위원회, 산업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실과소가 2013년 군정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만큼 군의회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효자 소득작목 '느타리버섯' 1위

10년간 가장 안정적 소득…엽연초·수박 順

전북지역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안정적인 소득작목은 느타리버섯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기원이 2002~2011년 29개 작목·작형의 소득변동 변이계수를 분석한 결과, 느타리버섯이 0.11를 기록해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했다.

변이계수은 그 값이 낮을수록 변동폭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엽연초(변이계수 0.14), 시설수박(0.17), 노지 봄배추(0.17), 인삼(0.18), 오미자(0.2), 복숭아(0.2) 등의 순이었다.

느타리버섯의 330㎡당 소득은 2007년 1278만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08년 생육배지 가격 급상승으로 913만까지 하락했으나, 값싼 국내배지 개발과 경영비 절감 노력으로 2011년에는 1077만원으로 상승했다.

소득이 불안정한 작목은 가을배추(변이계수 0.6), 생강(0.5), 대파(0.48), 봄감자(0.38), 가을무(0.37), 시설가지(0.33) 등이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관광객 7천만 육박 '전북 방문의 해'

작년 6860만명 전년보다 500만명 늘어…K-POP공연 등 특색있는 축제 주효

'전북 방문의 해'였던 지난해 전북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도 보다 무려 500여만명이 늘어난 6860여만명으로 최종 집계돼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15일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맛과 멋이 한 상 가득'을 주제로 공동 추진했던 '2012 전북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평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전북도와 시·군이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 결과, 전체 관광객 수로는 전년대비 8.1%늘었고, 특히 외국 관광객의 수는 전년도 보다 35.7%나 급증했다.

지난해 전주와 익산·김제·부안 등지에서는 한옥마을 태권도시범공연, 길 문화 체험, K-POP공연, 해양스포츠제전, 세계순례대회, 세계미술 거장전 등 전북방문의 해에 맞춘 특색있는 공연과 축제가 다채롭게 선보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엑스포장에 '전북전시관'을 설치해 이들을 대거 전주한옥마을 등 도내 관광지로 유치한 바 있다.

전북도 관광산업과 라태일 관광마케팅 담당은 "전북이 보유한 문화재와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데 성공,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이번 자체분석을 토대로 전문가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분석과 장·단기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